Tweet 0 Recommend +1 0 미투

설치미술가 칼리토 카르발료사 국내 첫 개인전

작가 칼리토 카르발료사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브라질 출신 설치작가 칼리토 카르발료사가 12일부터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국내 첫 개인전을 연다.

건축학을 전공한 그는 주위에서 일상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 공간을 변형시키고 재해석하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조각적 설치와 비디오 작업으로 세계 미술 무대에서 이름을 알렸는데 이번 전시에서 자신의 대표적인 조각적 설치 작품인 '살라 데 에스페라(대기실)'를 선보인다.

한때 전신주로 사용됐던 8~12m 크기의 육중한 나무 기둥 12개가 전시장 벽을 뚫고 공간 전체를 가로지르고 서로 교차하면서 잘 정돈된 전시장 공간을 낯설고 혼란스러운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카르발료사는 이런 작업을 통해 건물과 그곳에 거주하는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한다.

국제갤러리 전시장 공간을 새롭게 재해석한 이번 작품은 오스카 니마이어가 디자인한 상파울루 현대미술관에서 처음 선보였다.

전시는 11월 12일까지. ☎02-735-8449.

mong0716@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10/11 14:14 송고